제12편
소사신앙촌시대 〈제3부〉
一. 밀실(密室)
1) 밀실의 시작
2) 밀실이란 곳
二. 밀실의 역할
1) 밀실은 잃었던 두 하나님인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아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회복시키는데 성공을 거둔 귀한 곳이다.
2) 격암유록에서는 이곳에서 일남일녀를 키운다고 예언했다(密室)
三. 밀실에서 삼신일체(三神一體) 일인출(一人出)된 조희성님

제12편 - 소사신앙촌 시대 〈제3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46회)

二. 밀실(密室)의 역할

밀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이미 앞에서 조금씩 밝히면서 왔기 때문에 독자들은 다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다. 남사고 선생은 이 밀실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鷄龍創業曉星照臨(계룡창업효성조림) 草魚禾萊之山老姑相望 三神役活(초어화래지산노고상망삼신역활)....世論時(세론시)에서

"계룡창업을 하시는데 효성 즉 밝은 새벽별이 임하여 비추신다는 뜻을 지닌 주인공이 나타나신다. 그 주인공은 소래산과 노고산이 서로 마주 바라보는 곳에서 세 분 하나님이 역할하신 끝에 삼신일체 구세주 하나님으로 회복되신다."

해설: 초어화(草魚禾)의 합자는 소(蘇)를 말한다.

女古老人草魚禾艸來(여고노인초어화초래) 相望對坐地(상망대좌지) 三神帝王始出時(삼신제왕시출시)....末運論(말운론)에서

"여고노인(女古老人) 즉 노고산(老姑山)과 초어화초래(草魚禾艸來) 소래산(蘇萊山)이 서로 마주 바라보고 앉아있는 곳이 삼신제왕(三神帝王)이 처음 나오시는 땅이다."

해설: 하나같이 소래산과 노고산이 마주 바라보는 곳에서 세 분 하나님이 출현하신다고 예언하고 있다. 이곳이 밀실의 위치라는 것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와 같이 밀실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언을 해 놓았고, 또 이곳에서 삼신제왕 즉 세 분 하나님이 출현하실 곳이라고 정확하게 알리고 있다.

그렇다면 밀실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인가? 삼신제왕이 이곳에서 출현하셨는가? 지금부터는 밀실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다.

1) 잃었던 두 하나님,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아 승리의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데 성공을 거둔 귀한 곳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사신앙촌 건설은 세 분 하나님 중 첫번째 하나님이 출현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역사임을 설명했다. 박태선 영모님이 첫번째로 세상에 출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감람나무 원체이시다. 감람나무 원체는 두 가지를 키우게 되어 있다.

> 밀실은 하나님의 천지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찾아 삼위일체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슥4:12)"

성경에서는 한 감람나무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박태선 영모님은 당신이 감람나무 원체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박태선 영모님은 영적엄마의 역할을 하시면서 두 가지 즉 에덴동산에서 마귀에게 점령당하여 마귀종이 된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아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첫번째 하나님으로 출현한 박태선 영모님의 사명은 감람나무의 두 가지,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소사신앙촌을 건설하고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다. 그 사람들 중에서 해와와 아담을 찾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미 설명한 대로 전라도 광주 출신 천사마귀 홍업비 권사가 소래산과 노고산이 마주 바라보는 곳, 밀실로 들어가 해와이긴자의 후보로 생명을 건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밀실에서의 이런 일이 벌어질 때인 1962년에 박태선 영모님은 서둘러 둘째신앙촌인 덕소신앙촌을 건설하였다. 이것은 둘째하나님인 해와하나님이 이기시어 곧 출현할 시점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설명을 하였지만 신앙촌 건설은 하나님의 출현을 알리는 상징적인 건설이었다. 그러니 해와 이긴자의 출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급히 덕소에 둘째신앙촌을 건설하신 것이다.

(둘째 신앙촌에 대해서는 다음의 둘째신앙촌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한다.)

한편 소사신앙촌에서는 또 한 분의 승리의 하나님 후보자로 암동(暗動)하고 있는 분이 있었다. 그분은 조희성님이시다. 육군 중위의 신분으로 박태선 영모님을 생명을 걸고 따랐다. 그런데 갑자기 조희성님을 마귀라고 조롱하면서 다들 외면하는 것이다. 오만제단에서 예배도 보지 못하게 하면서 핍박을 하는 것이다. 그때쯤 박태선 영모님은 1970년 경남 기장에 제3신앙촌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지막 아담하나님의 출현이 가까이 왔다고 여기시고 제3신앙촌을 건설하시기 시작하신 것이다.

때가 이르러 1978년 조희성님은 밀실에 들어가셨다. 그곳에서 본격적인 자기와의 투쟁을 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10월 15일 드디어 나를 이기시고 "이긴자가 되었다" "완성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로 성공을 거두시니 이분이 삼신제왕(三神帝王)으로 출현하신 둘째아담인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참고: 고전15:45).

이렇게 하여 박태선 감람나무 원체는 두 가지인 아담과 해와 하나님을 밀실에서 완벽하게 출현시키시는 데 성공을 거두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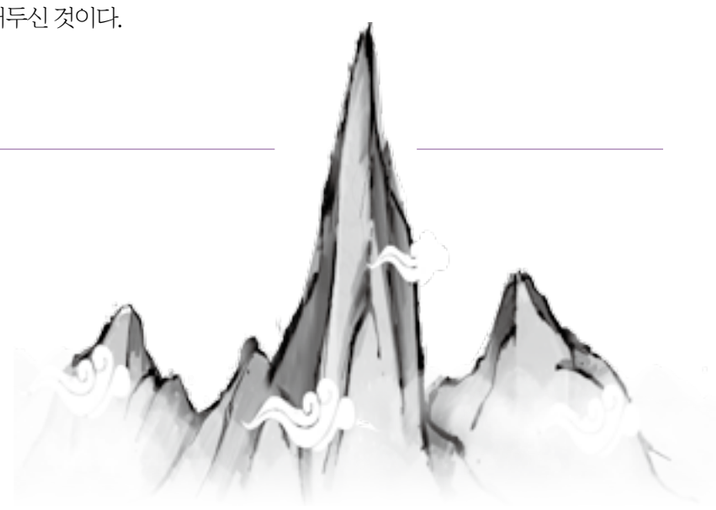
2) 격암유록에서는 이곳에서 일남일녀를키운다고 예언했다(密室)

우리나라 민족예언서인 남사고의 유록에는 하늘나라를 개국하기 위하여 온 분이 일남일녀를 키운다고 예언하고 있다.

一人鷄龍開國起功之臣(일인계룡개국기공지신) 十人生産一男一女辰巳眞人(십인생산일남일여진사진인) 男女不辨牛性在野非山非野(남녀불변우성재야비산비야) 仁富之間聖之出世(인부지간성지출세).....無用出世智將(무용출세지장)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여는 공을 세울 때 그는 십인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남일녀를 낳으니 이분이 진사진인이다. 남녀모두 소와 같이 희생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이분들은 산도 아니요 들도 아닌 인천과 부천 사이에서 나타나시는 성인이시다."

인천과 부천 사이에서 일남일녀를 키워 성인으로 출현하신다고 하였다. 인천과 부천 사이이면 소사를 말함이요 더욱이 앞에서 설명한 소사땅 밀실이란 곳에서 일남일녀의 성인이 출현한다는 말이다.(삼신제왕이 역할)*



격암유록 新 해설
제20회

마지막 천지공사의 시작과 끝맺음은 소사(素砂)에서 이루어지느니라

末運論(七) 말운론

石井何意延飮水 석정하의연음수
鷄龍何意變天地 계룡하의변천지
海印何能利山海 해인하능리산해
石白何意日中君 석백하의일중군
生旺勝地弓白豊 생왕승지궁백풍
十五眞主擇現出 십오진주택현출
末世聖君容天朴 말세성군용천박
鷄有四角邦無手 계유사각방무수
玄武靑龍朱雀時而 현무청룡주작시이
開東日出火龍赤蛇 개동일출화룡적사
白馬乘呼喚兮 백마승호환혜

금강산 비로석정은 무슨 뜻인가? 마시고 마시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생명수이니라.

계룡은 무슨 뜻인가? 썩고 죽는 세상(천지)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새 하늘 새 땅(신천지=천당, 극락)으로 변화시켜 주는 십승(6도81궁)이니라.

해인은 무슨 능력이 있어 산과 같이 바다와 같이 수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가? 즉 해인은 무슨 능력으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가?

백석은 무슨 뜻인가? 진리의 태양과 같은 밝은 임금이 계신 곳이요 영원한 생명의 신 하나님이 마귀를 이긴 이긴자가 계신 곳이요(십승지十勝地) 양백삼풍의 주인공 15진주가 택하여 나오신 곳이니라. 백석(白石)은 소사(素砂)를 말한다.

말세성군은 하늘이 내신 목인(木人) 즉 감람나무 정도령이다. 계유사각방무수鷄有四角邦無手는 鄭(정)자의 파자.

현무, 청룡, 주작 즉 북해도에서 동해도로 동해도에서 남해도로 마침내 자하도에 거하시게 되면 동방의 나라 한국의 산천이 밝아 오리라.

그런 연후에 진사성인 정도령이 백마를 타고 오시니 모든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리라. 백(白)은 금운, 마(馬)는 천마이니 하늘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정도령이 목운 5도72궁에서 중간에 여인 한 분 그리고 금운 6도81궁으로 오는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始終艮野素沙地 시종간야소사지
毛童所望怨無心 모동소망원무심
三南第一吉星地 삼남제일길성지
月下彈琴牛鳴聲 월하탄금우명성
脫劫重生變化處 탈겁중생변화처
執衡按生靈合 집형안생령합
忍不耐而先入運 인불내이선입운
愚者貪利目前禍 우자탐리목전화
世人何事勝己厭 세인하사승기염
天意拒逆狼狽事 천의거역낭패사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마지막 천지공사(중천中天)의 시작과 끝맺음은 우성인이 계시는(우성재야牛性在野) 소사땅이니라.

이를 모르는 자는 머리털이 보송보송한 철부지 같은 중생이라 바라는 바 죽음밖에 없구나. 간(艮)은 동북방이요 조선은 간방에 속한다.

소사 땅은 삼남(남조선) 제일의 길성이 비치는 곳이요(구세주 하나님이 좌정하신 6도81궁 정도령이 계신 곳) 고요한 달빛 아래 거문고 타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소 울음소리(정도령의 진리 말씀)가 나는 곳이며 심령을 변화시켜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게 하며 저 울대를 잡듯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 새 생명의 영으로 합일되도록 하는 곳이니라.

참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 선입자의 운이라 어리석은 자가 목전의 이익을 탐하다가 화를 당하는 격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보다 잘난 자를 싫어하는가? 그런 사람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니 낭패를 보리라.

見人出去 견인출거
打胸哀寃不吉兆 타흉애원불길조
天定計投不足日 천정계투부족일
飛火落地人生滅 비화락지인생멸
未常天心無怨恨 미상천심무원한
人心不還自取禍 인심불환자취화
三人合日春心生 삼인합일춘심생
道不覺而怨無心 도불각이원무심

사람들이 신천촌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나가지 말라며 애원하다시피 하는 것은 불길한 징조이니라. 하늘이 정해둔 수가 부족한 날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인생들이 멸하게 되느니라.

천심은 원한이 없는데 인심(人心)이 천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즉 옛 습관을 고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살아가니 스스로 취한 앙화이니라.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영생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이치를 가진 도(영원한 생명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죽으리라. 三人合日(삼인합일)은 春(춘)의 파자.

太神歲壬申乙巳運 태신세임신을사운
百五而七四始末 백오이칠사시말
當末運 絶倫者 당말운 절륜자
必先一小生 필선일소생
盜賊者必先凶 도적자필선흉
半死匕交 반사비교
保命在於三角山下半月形
보명재어삼각산하반월형
保身者在於四口體合
보신자재어사구체합
在官者不水靑直勤 怨無心也
재관자불수청직근 원무심야
害國者 陰轉陽 强亡柔存
해국자 음전양 강망유존
染色者誰 無色者誰 염색자수 무색자수
存亡興敗必見此色 존망흥패필견차색

조선왕조의 운은 태조(이성계)가 등극한 임신년(1392년)부터 을사년(을사보호조약-1905년)까지이며 약 500년에 28대왕(7x4)으로 끝나느니라. 말세의 운에는 천륜과 인륜을 끊는 자는 반드시 먼저 죽으리라. 일소생(一小生)은 불생(不生)의 파자.

도적질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흉하리니 반죽음을 당하리라.

목숨을 보전하는 길은 삼각산하반월형인 마음 심(心)에 있으며 몸을 보전하려는 자는 사구체합 즉 입 구(口)자가 네 개 합쳐진 밭 전(田=心田=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자에 그 길이 있느니라.

관직에 있는 자가 청렴, 정직, 근면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나라를 해롭게 하는 자도 죽으리라.

음의 세상(마귀세상=죄악세상)이 양의 세상(하늘나라)으로 전환되나니 강한 자는 멸망하고 온유한 자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세속에 물든 자 누구며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 누구인가? 사는지 죽는지 흥하는지 패하는지는 마음에 물든 색(세속에 물 들었는지 아닌지)을 보면 반드시 알게 되리라. *

박 명 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